청년칼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자

장 초 롱
퍼니라이프 대표

다양한 청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를 꿈꾼다. 과거 80년대의 광주처럼 표현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 몇몇 대표적인 청년들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주장이 표현될 수 있는 시대를 말이다.

이 공간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가급적 칼럼을 단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제안했다. 필자 역시도 신문사 칼럼과 글쓰기는 처음이다. 그렇기에 며칠을 고민했다. 칼럼이 가진 의미부터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칼럼은 신문지상의 시사문제나 사회풍속 등을 촌평하는 난으로 대개 정리할 수 있다. 매일 일정한 자리에 연재되는 단평란, 그리고 한 사람의 필자가 주관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공간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에 중점을 뒀다. 지면의 한 공간을 통해 다양한 이 시대의 목소리들이 또는 생각이 표현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혹은 지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의 목소리가 다양한 곳에서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대화되길 바란다. 이미 우리내 청년들에게 시사문제와 정치 분야를 포함한 현 상황은 거리감이 생긴지 오래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그들만의 세계가 되어버린 정치 분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척하고 합당한 노동을 통해 일하는 사람보다 '일확천금'의 코인이 정당화되는 현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또 세대갈등을 벗어나 남녀 젠더갈등으로 번지며 우리 모두가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경쟁과 대화가 아닌, 타인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상대적 우위를 위한 경쟁. 성공의 지름길이던 고등교육의 결과물이 학자금 대출로 이뤄진 빚더미 잔치가 되어버리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청년들은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명확한 해결법을 알고 있지는 않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일반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해결방안을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방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청년들의 수는 적다.

우리 청년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웠다. 선생님과 교수님이 그들의 지식을 알려주신 방법으로, 또 산업화 과정을 거친 부모님을 통해 노동이 재산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익숙하다. 질문하는 학생이 주변학생들의 눈초리를 받던 우리의 배움터에서 본인이 생각과 본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배움터가 아니다. 창의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이,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혼자 풀지 못했던 사회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인 강요나 제안을 제외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그리고 평범한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바라본다.

기 고

가을의 기후학적 의미

박 광 석
기상청장

우리나라 사계절은 24절기로 나뉜다. 절기는 태양의 황도상 위치에 따라 구분 짓는데, 그중 가을은 입추(立秋)에서 시작해 입동(立冬) 전까지로 정의 내려진다.

올해는 8월7일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를 맞았다.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는 처서(處暑)는 8월23일,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는 9월7일이었다.

절기와 관련된 가을 속담도 여럿 있다. 그중 '추분을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 숨는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추분(秋分)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급격히 줄어들고, 벌레들은 겨울나기를 준비하기 위해 땅밑으로 숨으며 가을의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올가을은 달랐다. 추분을 한참 넘기고서도 연일 비가 쏟아졌고, 특히 10월 들어서는 32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다.

10월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가을인지 한여름인지 구분이 안 가는 날을 되풀이했다.

우렛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속담은 문자 그대로 옛말에 그칠 뿐이었다.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계절에 변화가 생기면서 절기상으로만 가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가을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 기후학적으로 풀어보자면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 미만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는 첫날을 의미한다.

즉 일평균 기온이 20도보다 낮아야 가을로 인정되는데, 광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평균 기온이 21도 안팎을 유지했던 만큼, 사실 가을보다는 여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교차'가 있다. 가을이 되면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덥고 습한 기단이 물러나고 차고 건조한 기단이 상공을 덮는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은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내고, 기온은 이에 따라 쉽게 좌우된다.

낮에는 비교적 따사로운 일사의 영향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밤과 새벽 사이에는 뜨거운 열기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일교차가 매우 커진다.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일교차는 빼놓을 수 없는 가을의 기상·기후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낮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은 달라진 외부 공기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로 생체리듬이 흐트러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생체학적으로 보자면, 가을은 심·뇌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이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뇌졸중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등 환절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출되는 지수단계에 맞춰 외출 시기와 옷차림 등을 적절히 잘 조절하면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완연한 가을이다. 굳이 정의 내리고 분석하려 들지 않아도 가을 복판에 다다랐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후학적 가을은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기후변화로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을의 시작일이 과거보다 9일 늦춰지며, 절기상의 가을과 기후학적 가을은 그 간극을 점점 넓혀가는 중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거두어 갖는 계절'이라는 가을의 어원을 되새겨본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한 해 결실이 풍성히 갈무리되는 계절,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인 가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가속화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겠다.

현장칼럼

환절기,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의 중요성

이 정 자
광주 남부소방서장

추분이 지나면서 점차 밤이 길어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로 기온 변화가 커서 순환계통(뇌졸중, 심근경색 등) 질환에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망원인 중 4분의 1을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아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년도부터 매년 9월 둘째주 토요일을 4분의 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세계 응급처치의 날(World First Aid Day)'로 제정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보급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응급처치 영웅이 되세요(Be at first aid here at school and in your community)'라는 주제로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도록 행동하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등의 사용법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서에서는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9월10일-10월10일 한 달 동안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어린이·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119응급처치 영상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급처치 사례나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 영상을 제작해 이달 18일까지 참여하면 된다.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응급처치법을 영상으로 쉽게 접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아주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사고,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는 기도 폐쇄, 심한 운동으로 인한 심장마비, 더운 날씨에 체온이 심하게 올라가는 열사병, 추운 곳에 오래 방치된 경우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 등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많다.

따라서 평소에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적 응급처치법과 아울러 예방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방청·질병관리청에서 조사·연구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통계집'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율도 3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대부분(45.3%)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는 것은 환자의 예후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만약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힌 후, 바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데 팔을 곧게 펴, 몸무게를 실어주고, 분당 100-120회로 강하고 빠르게 30번 누른 다음, 환자의 기도가 열린 상태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의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줘야 한다. 심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도 중요한데, 가슴을 열고 젖꼭지와 목젖의 기준선을 그어 만나는 지점이 압박 위치이다.

세계 응급처치의 날을 맞아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처치법을 숙지해 보는 건 어떨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응급처치를 위한 대면 교육(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등)은 축소되었지만, 앱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개관을 앞둔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직접 실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해 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공공의료기관 책무 저버린 국립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턱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처신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병원의 일반 임산부 초음파 비용은 19만3천원으로 14개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세세브란스병원(5만8천원)과 무려 13만5천원 차이다. 임산부 정밀초음파 검사비도 마찬가지다. 전남대병원은 42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이다.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서울아산병원보다 19만1천원이나 비싸다. 산모 고령화와 태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쳇말로 장삿속이다.

상식선에선 지방이 서울에 비해 대체로 쌀 것인데, 영 그렇지가 않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강조한 것처럼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하겠다.

전남대병원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해 눈총을 맞아야 할 판이다. 최근 5년간 모두 6천486만원(139건)으로 서울대병원(3억2천394만원·393건), 부산대병원(8천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7천370만원·188건) 다음이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광주 구도심에서 이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강도높은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관계기관도 과다한 진료비 책정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나없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다.

사람이 우선되는 광주의 대중교통 미래비전

광주시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선포했다. 오는 2040년까지 20년간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특히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시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대전환을 알렸다.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해 광주의 교통체계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은 도시철도 1·2호선을 근간으로, 이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AI-그린뉴딜 비전 선포를 통해 중앙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약속했고, 탄소중립과 광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분야의 과감한 개혁과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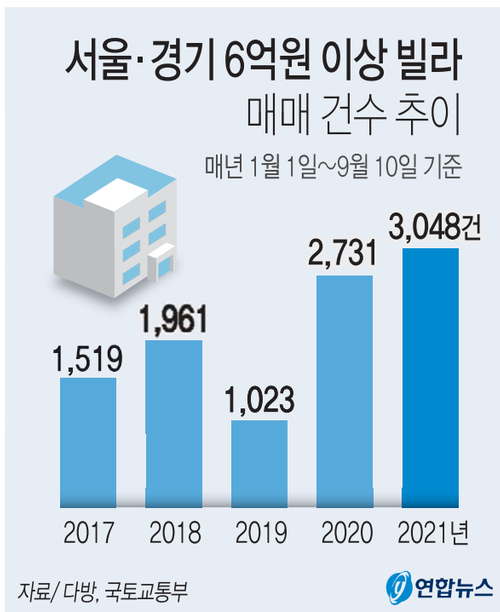
광주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50%가 대중 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 등 5대 전략 및 21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16조 4천27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광주시는 그동안의 저효율, 고비용의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실제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27%에 머물고 있다. 이에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 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획기적인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전 인류적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는 말로만 이어선 안된다. 하지만 비교적 손쉽게 교통 분야의 혁신부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을 순조롭게 건설 중으로 그 계기가 이미 마련됐다. 광주시는 미래비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미래 교통체계를 기대하게 된다.

그래픽 뉴스

서울·경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4년 새 2배 올라



최근 아파트에 이어 빌라 가격도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팔린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2017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빌라 건수는 총 3천48건으로, 전체 빌라 거래 건수(8만7천33건)의 3.5%에 달했다. 2017년 같은 기간 6억원 이상에 팔린 빌라 건수가 1천519건(2%)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천925만원에 달하지만 서울지역 빌라의 평균 매매가는 3억4천669만원에 그쳐 빌라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고가에 속한다.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라가 크게 늘었다. 2017년 조사 기간(9월 10일 기준)에 6억원 이상에 팔린 빌라 건수는 310건(0.8%)에 그쳤지만, 올해는 조사 기간에 915건이 거래돼 3배 정도로 증가했다. 경기지역 전체 빌라 매매(4만3천318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로, 4년 전보다 1.3%포인트(p) 올랐다.

서울의 6억원 이상 빌라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2천133건으로 집계돼 전체 거래 건수(4만3천715건)의 4.9%를 차지했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 건수는 76.4% 늘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p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